

# 다니엘서 - 제183번

영원한 기초: 예언적 역사와 신자의 신앙 속 그리스도

Jeff Pippenger

2024-04-13

“베드로가 고백했던 ‘진리’는 신자의 믿음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것이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측면을 밝혔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예언적 역사의 한 요소라는 것이다. 예언적 역사의 사건들을 나타내는 이정표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분의 그 사건들과의 연관성은 예언적 이정표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 이정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정표들을 지켜야 한다고 화잇 자매가 자주 말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스도 당시 시험의 주제를 나타낸 이정표는 그분의 침례였고, 신성한 상징의 강림으로 특징지어지는 거룩한 개혁의 선들에 있는 다른 사건들과도 일치하였다.

모세의 개혁 노선에서 신성은 내려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셨으니, 이는 창조주가 피조물과 결합하심을 상징한다. 칠십 년이 끝날 무렵의 개혁 노선에서는 미가엘이 내려와 고레스로 하여금 첫 번째 칙령을 추진하도록 권능을 주셨고, 동시에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의 개혁 노선에서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상징이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1840년 8월 11일에 내려온 그 천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분은 먹어야 할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오셨으며, 그분 자신이 곧 그 작은 책이셨다. 거기에서 그분은 하늘의 떡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거룩한 역사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지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될 때, 그 사건들은 그의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며, 그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언을 제시하는 것도 그의 말씀이며, 사건이 도래할 때 성취되는 것도 그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처음과 마지막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정표와 마지막 날들에 완전한 성취에 이르는 이정표를 지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였다.

2001년 9월 11일의 예언적 성취를 거부하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표현한 그 진리는 ‘신자의 믿음의 기초’였고, 2001년 9월 11일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의 백성을 예레미야의 ‘옛 길’로 돌아가게 인도하셨는데, 이는 제1천사와 제3천사의 기별 운동의 ‘기초들’을 상징한다. 베드로는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불들고 있는 기간에 인침받는 14만 4천을 대표했다. 인침 받는 때는 특정한 예언적 기간으로서, 2001년 9월 11일에 시작하여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끝난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예증하신다.

인치는 때의 시작에, 침례 때 성령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왔고,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아님"이었다. 이는 밀러주의 역사에서 그분의 영광으로 땅을 밝히기 위해 내려온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아님"이었기 때문이다.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아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바벨론에서 그분의 다른 양떼를 부르시면서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기별 중 둘째 기별을 제시하신다. 인치는 기간의 중간에, 1844년 4월 19일 밀러 운동의 첫 실망 때 둘째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한 천사가 내려왔다.

그 둘째 천사의 도착과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의 도착 사이에,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가 도착함에 따라 둘째 천사에게 힘을 더해 주기 위해 많은 천사들이 보내졌다. 밀러파 역사에서 이 천사들이 도착했을 때의 역사를 언급하며, 화이트 자매는 이 메시지들을 거절한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똑같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메시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보았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의 예수의 증보로 아무런 유익도 받을 수 없다. 초기 저술, 261.

천사들이 상징하는 기별은 그것이 거절될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분이 그 기별과 그 역사적 성취를 몸소 구현하셨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18일, '다른 아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고, 이는 첫 실망과 지체의 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 거리에서 살해되어 죽어 마른 뼈가 된 그분의 말세의 백성들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음성을 들음으로써 깨어나게 되어 있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며 지금이니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하도록 그에게 주셨고, 또 그가 인자이므로 심판을 행할 권한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 일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오나니, 그들이 나오리라.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25-29.

2023년 7월에 그의 음성이 죽은 마른 뼈들을 생명으로 불러일으켰고, 이어 알파와 오메가는 인치는 때의 시작을 다시 반복했다. 2023년 7월은 인치는 때의 종결 시기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때 그의 백성은 다시 예레미야가 말한 옛 길, 곧 밀러주의 역사의 기초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밀러주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기초적 메시지는 처음과 마지막 메시지였으며, 그것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였다.

2023년 7월에 하나님의 말세 백성들은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다시금 받았다. 그들이 작은 책을 먹으면서, 요한계시록 9장(동방의 소식)의 셋째 화의 기별과 다니엘 11장(북방의 소식)의 기별을 인정할 것인지 시험을 받는다. 그 시험 과정은 그들을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로 이끄는데, 이는 파니움 전쟁이며, 곧 가이사라 빌립보이며,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들은 두 부류가 드러나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다. 한 부류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른 부류는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이다.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때에는 세 가지 음성이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다른 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첫째 음성은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한 번의 손길로 무너졌을 때 울려 퍼졌다. 둘째 음성은 무덤에서 죽은 자들을 불러내는 대천사 미가엘의 음성이다. 셋째 음성은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때에 그의 다른 양 떼를 바벨론에서 나오게 부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의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말세의 백성을 “말세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의 그 부분”으로 인도하실 때 이루어진다.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의 파니움은,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식별해 주는, 봉합되었던 다니엘의 예언의 ‘부분’이다. 파니움은 1844년 8월의 엑서터 야영회이며,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성취되는 역사이고, 십사만 사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인치는 예언의 기별이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구절들은 매우 거룩한 땅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믿음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고 선언하신 바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지는 않았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계시된 것은 그의 자기 지혜나 선함 때문이 아니었다. 인간은 결코 자기 힘으로는 신적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옥보다 더 깊으니 네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욥기 11:8. 오직 양자의 영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9, 10. ‘주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거였다. 시편 25:14; 요한복음 6:45. 아, 진실로, ‘시몬 바요나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또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돌, 곧 굴러다니는 돌을 뜻한다.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을 때, 지옥의 문들이 그를 이겼다.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그 한 분 위에 세워졌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메시지는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그것은 ‘지옥의 문’이라 불린 신전을 가진 그리스 신 판과 땅의 짐승의 두 배도한 뿔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 놓여 있다. 마카비인들은 하나님의 배도한 백성이었는데, 그리스인들의 종교와 싸우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는 자들이라고 자처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종교적 지도자이자 정치적 지도자로 규정하였다. 그들은 타락한 교회들의 배도한 개신교를 대표하는데, 그 교회들은 미합중국 정부와 함께 이제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있으며, 글로벌리스트들의 위키이즘과 어머니 지구의 종교와 싸우고 있다. 그 배도한 뿔들은 글로벌리즘의 종교적·정치적 요소들과의 싸움에서 우세를 점하고, 동시에 참된 개신교의 뿔은,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령의 ‘큰 지진’ 때 기치로 높이 들려지기 전에, 어리석은 처녀들의 마지막 잔재가 제거됨으로써 정결하게 되어 가고 있다.

다니엘서의 예언 가운데 말세에 관한 부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자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메시지인 그 부분은 가이사랴 빌립보(곧 파니움)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봉인이 풀린다. 그 봉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신론적 짐승들과 2015년에 그 짐승을 선동하기 시작한 공화주의의 뿔 사이의 전쟁, 그리고 이제 강대한 군대로 부활하고 있는 진정한 개신교의 뿔을 대적하는 싸움 한가운데에서 풀린다.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2001년 9월 11일의 이정표를 나타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나타내는 진리는, 베드로의 시대에 예수께서 메시아이신지 여부가 그러했듯이, 틀림없는 시험의 진리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은, 아들이 누구이신지에 관해 계시된 모든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인자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신성이 인성 안으로 성육신했다는 진리이며, 이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때에 성취되는 바로 그 사역이다. '성육신'의 진리는, '안식일'의 진리가 처음에 예표했던 마지막의 진리이다.

1844년 10월 22일은 셋째 천사가 도래한 날이었다. 천사가 도래할 때, 진리가 봉인에서 풀려나는 그 시대에 적합한 특별한 진리를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여시며, 그렇게 열린 진리는 그것이 드러나는 그 세대를 시험한다. 1844년 10월 22일에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 동안 그분이 세우신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진리들이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 하나님의 율법,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직분, 짐승의 표 문제, 그리고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이 모두 드러났다. 화이트 자매에게는 그 진리들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께서 특별한 빛으로 지목하신 하나의 진리가 있음을 보여 주셨다.

"나는 십계명의 정중앙에 있는 넷째 계명을 보았을 때, 그것을 부드러운 빛의 후광이 에워싸고 있어 놀랐다. 천사가 말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안식일의 기초도 또한 놓였다.'" 증언, 1권, 75쪽.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때가 이르렀으나, 그것은 1863년의 반역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2001년 9월 11일,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로 표상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백성이 먹어야 할 감추어진 책을 손에 들고 내려오셨을 때 인침 과정이 시작되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은 언제나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시므로, 마지막 때에는 또 다른 진리가 특별한 빛 가운데 드러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십사만 사천을 인치려고 하셨을 때 강조되었던 안식일의 진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다니엘이 자기에게 정해진 자리에 설 때가 왔다. 그에게 주어진 빛이 그 어느 때보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왔다. 주께서 자신들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하신 이들이 빛 가운데 행한다면, 이 땅의 역사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예언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의의 태양의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행실을 더럽혀 구속주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하늘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들은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진리가 그들에게 드러난다. 성육신의 교리는 은은한 광채로 빛난다. 그들은 성경이 모든 신비를 열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본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은 경건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number 21, 406, 407.

성육신의 교리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진리이며, 말세에 그 경험에 이른 자들의 표징은 안식일이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이 되게 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 20:12.

십사만 사천 명은 영원히 인침을 받으며, 그 인침 과정은 과정의 마지막, 곧 일요일 법령 직전에 인이 새겨지는 짧은 시기를 가리킨다. 그 짧은 시기에 신성이 인성과 영구적으로 결합된다.

형제 여러분, 위대한 준비의 사역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연합하는 자들은 세속의 틀을 받아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는 자들은 하늘의 틀을 받아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칙령이 반포되고 인이 찍힐 때, 그들의 품성은 영원히 순결하고 흠 없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결코 부정한 남자나 여자의 이마에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야심이 많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의 이마에도 결코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허를 가졌거나 간사한 마음을 지닌 남자나 여자의 이마에도 결코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인을 받는 모든 이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곧 하늘의 후보자들입니다. 나아가십시오,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지금은 이 점들에 대하여 간단히 적을 수밖에 없으니, 다만 준비의 필요성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려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의 두렵고도 엄숙한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증언, 제5권, 216쪽.

이전 글은 인침이 일요일 법령 때 이루어진다고 시사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화잇 자매는 일요일 법령이 큰 위기임을 분명히 하고, 또한 품성은 위기 속에서 드러날 뿐 결코 위기 속에서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인침이 일요일 법령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의미에서이며, 그때 인침을 가진 자들은 기치로 높이 들어 올려진다. 인침은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안식일 준수자들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일요일 법령에서 닫힌다. 인침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는 1844년 10월 22일 이후의 기간이 보여 주듯, 먼저 시험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모든 개혁 운동에서 종말의 때에 봉인이 풀린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신성한 상징이 강림할 때, 시험의 과정이 시작된다. 미가엘이 강림하여 고레스가 첫째 칙령을 추진하도록 능력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지난 70년 동안 머물던 삶의 터전을 떠나 황폐한 성읍으로 돌아가 그것을 재건할 것인지로 시험을 받았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침례 때 강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 문제로 시험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가 1840년 8월 11일에 강림했을 때, 그 세대는 작은 책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그 작은 책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로 시험을 받았다.

1840년 8월 11일에 한 시험 과정이 시작되어 두 부류의 예배자가 생겨났고, 어린양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간 그 부류는 십사만 사천 가운데 들 후보자들이었다.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그 세대에 대한 마지막 시험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에 관한 더 큰 빛이 임하면서 시작되었다.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의 도래로 시작된 그 기간 속에서, 1856년부터 1863년까지는 라오디게아 기별이 마지막 시기를 표시하였다. 그 기간은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나 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으나,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요한복음 1:1-5, 14).

이 장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과 중요성을 상세히 서술한다. 주제를 잘 이해하는 자로서 요한은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돌리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말한다. 그는 태양의 빛처럼 귀한 진리의 신성한 광채를 발한다. 그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교리는 하나의 신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골로새서 1:26)이다. 그것은 경건의 크고도 심오한 비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요한복음 1:14).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하늘의 본성보다 낮은 본성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낮아지심을 이만큼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한복음 3:16). 요한은 이 놀라운 주제를 매우 단순하게 제시하여, 모든 사람이 제시된 사상을 파악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을 취하셨다. 그는 실제로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도 친히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다'(히브리서 2:14).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셨다. 그는 사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포되었다. 바울은 '이 사람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으로 여김을 받았으니, 이는 집을 지은 이가 그 집보다 더 큰 존귀를 가짐과 같다'(히브리서 3:3)라고 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인성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그분의 선재에 관해서도 분명히 증언한다. 말씀은 신적 존재로서,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아버지와 연합하여 하나이셨다. 영원부터 그는 언약의 중보자이셨으며, 그를 받아들이는 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땅의 모든 민족은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요한복음 1:1). 사람이나 천사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

세상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요한복음 1:3).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면,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에 관해 말씀된 바는 누구든 의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단호하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또 가장 높은 의미에서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분이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은 영원부터 계셨고, 아버지와 하나이시되 구별된 위격이셨다. 그분은 하늘의 비할 바 없는 영광이셨다. 그분은 하늘의 지성 있는 존재들의 지휘관이셨고, 천사들의 경배와 찬미를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 받으셨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강탈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길의 시작에 나를 소유하셨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옛적 그의 행하신 일들 전에, 나는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에 세워졌다. 깊음이 없을 때 내가 나왔고, 물이 풍성한 샘들이 없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산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언덕들보다 먼저 내가 나왔나니, 아직 그가 땅도, 들도, 세상의 티끌의 으뜸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였다. 그가 하늘을 예비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깊음의 표면에 경계를 정하실 때에도 그러하였다' (잠언 8:22-27).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셨다는 진리 안에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것은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으로서, 그곳을 신적이고 본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한다. 그 자체로 무한히 신비로운 이 진리는, 접근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빛 가운데 모셔져 있으면서도, 다른 신비하고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진리들을 설명해 준다. 선택된 메시지, 제1권, 246-248.